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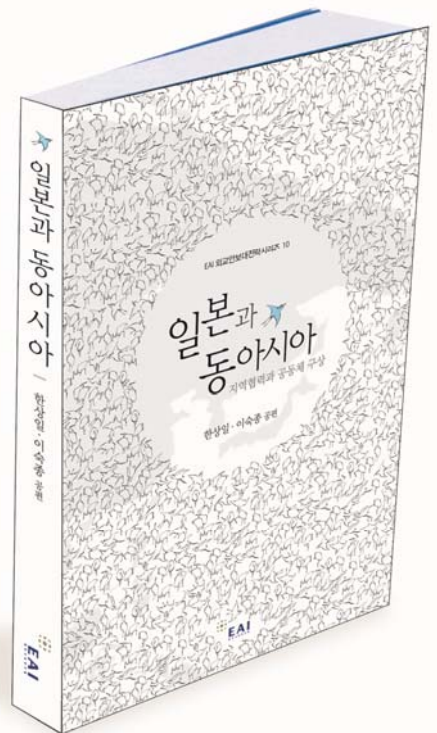
탐욕적 팽창에서 협력의 파트너십으로

일본이 꿈꾸는 21세기 동아시아

2009년 9월 역사적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한 일본 민주당 내각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정책구상을 내놓았다. 그간의 ‘협력’이니 ‘연대’니 하던 데서 ‘공동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것이다. 지식인의 담론에서 쓰이던 공동체라는 단어가 공식화된 타이밍이었다.

오늘날 세계의 시선은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부상하는 중국만으로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를 견제하는 미국이 있고, 또한 여전히 일본의 위치도 무시할 수 없다. 한반도 문제는 향방을 알 수 없고, 동남아의 역동성은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실험이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역동성 속에 일본은 과연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탈아입구(脫亞入歐)니 탈구입아(入歐脫亞)니 하는 식의 19세기적 이분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 책은 21세기 네트워크와 되어가는 국제관계 속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각 분야별로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을 심층적으로 파헤친다.



- **편저자**_ 한상일 · 이숙중 ● **출판사**_ (재) 동아시아연구원 ● **발행일**_ 2011년 4월 11일
- **가 격**_ 15,000원 ● **ISBN** 978-89-92395-15-1 93340
- **문 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68번지 삼풍빌딩 909호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출판팀 신영환 T. 02-2277-1683 (내선 112), F. 02-2277-1684

동아시아공동체론, 일본을 알아야 한다.

21세기 국제관계의 중심에는 동아시아가 있다. 중국의 부상은 세계사적인 변화를 전망하게 한다. 미국은 여전히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에 있으며, 막강한 경제력의 일본은 아시아를 넘어 전지구적 수준의 활동가에서 다시금 동아시아 지역에 힘과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하고 있다. 아시아 세 마리 용의 발전 신화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들을 답습한 신흥 발전국가들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꿈틀대고 있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서구사회는 발전이 야기한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아시아적 가치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핵 문제, 대만 문제, 발전 불균형, 인접국 간의 역사문제 및 영유권 분쟁, 자연재해, 환경문제 등이 지역의 산적한 위기 요인 또한 관심의 대상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논할 때 일본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 비록 중국 부상에 따른 견제의 의도에서, 그리고 미일동맹의 중요성에서 기인한 외교전략적 선회라 말할 수도 있지만, 일본이 아태 지역에 전략적 관심을 둔 것은 비단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제국주의의 역사도 가지고 있거니와, 대미 일변도의 외교에 치중해 있던 시절조차 일본은 세계 경제대국으로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지속적 원조와 관심으로 영향력을 놓친 적이 없었다. 한반도에 대한 특별한 이해 또한 계속되고 있다. 그 누구보다 “동아시아공동체” 논의가 활발한 곳도 일본이며, 정부 차원의 솔선도 가장 본격적으로 나왔다. 경제적 문화적 힘을 배경으로 이제 일본은 외교전략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일본, 역사의 걸림돌을 방치할 것인가?

동아시아 지역화 및 지역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일본은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정치 및 군사안보 영역에서 일본은 그동안 미일동맹에 의존하면서 소극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인간안보의 국제 공헌”,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한 “효과적 파워”(effective power)의 역할 등을 통해 새로운 입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경제 분야에서 일본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양자간 EPA 체결을 통해 자유무역의 그물망을 확장시켜 왔으며, 동아시아 지역 금융협력 과정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해 왔다. 이와 함께 문화/컨텐츠 분야에서 일본이 이 지역에 가지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최근 한류가 새로운 트렌드로 동아시아 지역을 휩쓸고 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침투한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은 “쿨 재팬”에서 “아시아 컨텐츠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리더로서 일본의 역할 여부는 오늘에 있지 않고 과거에 있다. 제국주의와 전범국의 과거사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본은 과거사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보다는 과거에 대한 인도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끊임없이 거론되는 독일의 역사청산 사례는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임을 알아야 한다.

신시대 한일관계의 도래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21세기 국제질서는 미중 양강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그 속에서 한일관계 또한 과거의 미국 중심의 수동적 관계에서 벗어나 신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귀로에서 있다. 지리적 근접성, 좋은 싫든 역사의 공유, 문화적 유사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양국은 정치 민주화와 자유주의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국가 주도의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에 집중하여 성장해 온 것도 유사하다. 또한 최근에 양국 시민사회 간 교류의 폭발적 증가는 국익을 넘어선 보편적 규범과 가치의 공유 기반이 획기적으로 넓어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핵심 파트너십은 신시대 한일관계에서 출발할 것이다.

목차

1장 동아시아공동체의 역사적 재조명 : 담론과 정책	한상일
2장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의 역할	이숙종
3장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정책	김기석
4장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과 안보정책	박영준
5장 일본과 동아시아 금융협력체제	김상준
6장 EPA정책을 통해 본 일본의 동아시아 정책	김양희
7장 일본의 문화교류정책과 동아시아 : “쿨 재팬”에서 “아시아 콘텐츠 공동체”로	강태웅
8장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과 미국 : 미국의 EAS 및 TPP 참가를 중심으로	조양현
9장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 전략과 한일관계	이원덕

필자약력

강태웅

광운대학교 일본학과 및 문화산업학부 교수. 일본 도쿄대학교(Tokyo University)에서 학술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일본영상문화론과 표상문화론, 한일문화비교론이며, 서남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작에는 《교차하는 텍스트, 동아시아》(공저, 2010),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공저, 2010), 《제국의 지리학 만주라는 경계》(공저, 2010),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편저, 2009), 《세계박람회와 지역문화》(공저, 2008), 《제국의 교차로에서 탈제국을 꿈꾸다》(공저, 2008) 등이 있다.

김기석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대 일본학회 회장.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CLA)에서 일본정치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동경대학교 객원연구원, 일본 법정대학교 방문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 일본정치경제,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이며, 한일신시대위원, 동아시아연구 네트워크(Network of East Asian Studies: NEAS) 한국 코디네이터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작에는 “How Has Korea Imagined Its Region?”, “일본은 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선호하였는가?” 등이 있다.

김상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동서문제연구원 일본센터장. 미국 시카고대학교(The 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비교정치, 정치경제,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이다. 최근 저작에서, “Expanding Focus on Japan and the Bounded Dynamism of Japanese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in South Korea,”(co-authored) “Globalisation and Individuals: The Political Economy of South Korea’s Educational Expansion,” “Dividing Seabed Hydrocarbon Resources in East Asia”(co-authored) 등이 있다.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겸 일본팀장. 일본 도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영국 브래드포드대학(University of Bradford) 객원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대위원회 및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국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한일 FTA, 일본경제, 한일경제관계 등이며, 한일신시대위원, 한중일 민간 경제협력포럼 한국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작에는 “韓日FTAをめぐる懸案と懸現に向けた推進方向”(福井縣立大學 編, 2011 발행예정),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일본 공적연금의 현안과 개혁과제”(2010),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2008) 등이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및 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분과 위원장(2011). 일본 도쿄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육사 교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자문위원,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위원회 연구위원,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초빙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일본외교 안보정책, 동아시아 국제관계론, 국제안보 등이며, 주요 저작으로는 《제3의 일본》(2008), 《안전보장의 국제정치학》(공저, 2010), 《부국강병의 길 : 해군의 탄생과 근대 일본》(근간) 등이 있다.

이숙종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객원연구원,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교수강사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거버넌스와 여론 연구, 시민사회, 정치경제 등이며, 한일신시대위원, 외교안보수석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작에는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Co-ed, Palgrave, 2011), “The Demise of ‘Korea Inc.’: Paradigm Shift in Korea’s Developmental State,” “The Assertive Nationalism of South Korean Youth: Cultural Dynamism and Political Activism,” “Japan’s Changing Security Norms and Perceptions Since the 1990s” 등이 있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학부 교수,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소장. 일본 도쿄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객원연구원, 도쿄대학 대학원 국제사회과학 전공에서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한일관계, 일본 정치외교이며 한일 신시대공동연구 간사,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외교안보수석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작에는 “한일 기본조약과 북한문제 : 유일합법성 조항과 그 현재적 함의”(2010), “신시대 한일관계의 구축에 관한 연구”(2011), 최근 번역서로 《포스트 크라이시스의 세계》(2010) 등이 있다.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도쿄대학 총합문화연구과 정치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학교 일본학중점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울대, 국민대, 인하대, 중앙대 강사를 지냈다. 주 연구 분야는 일본 정치외교, 한일관계, 동아시아 국제관계이다. 주요 저작으로 “동아시아 역사논쟁과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논의”(한일민족문제연구), “냉전기 한국의 지역주의 외교 : 아스팍(ASPAC) 설립의 역사적 분석”(한국정치학회보), “아시아 지역주의와 미국 외교 : 아시아개발은행(ADB) 설립의 역사적 분석”(국제정치논총), “한일회담과 아시아 지역주의 : 지역주의 구상의 한일간 상호 비대칭성”(외교안보연구), 《アジア地域主義とアメリカ》(아시아 지역주의와 미국) (동경대학출판회), 《현대외교정책론》(공저),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1》(공저) 등이 있다.

한상일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196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클레어몬트 대학원 (Claremont Graduate School)에서 일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 취득했다. 스탠포드(1983-1984, 1998-1999), 도시샤(1988-1989), 프린스턴(1995-1996)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연구 활동했다. 1982년에는 《일본제국주의의 한 연구》로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또한 2001년에는 《일본 지식인과 한국 : 한국관의 원형과 변형》이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그 외 저서로는 《제국의 시선》, 《일본 군국주의 형성 과정》, 《일본의 국가주의》, 《일본 전후 정치의 변동》,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 《지식인의 오만과 편견》, 《1910, 일본의 한국병탄》(공저) 등이 있다.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은 2002년 5월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EAI는 다양성, 관용, 책임감, 투명성을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설립 이래 건전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산재한 지식들이 EAI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의 그물망을 짜고 변화의 추진차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자양분으로 짚을 띄우고 세상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AI의 변함없는 목적이자 역할입니다.

EAI는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포럼,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의 연구활동은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국가적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한 발 앞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EAI 연구팀은 이론과 정책 그리고 민의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외 학자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한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해외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AI는 연구활동의 성과를 단행본,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워킹페이퍼, 이슈브리핑 등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미디어를 통한 지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와 포럼 그리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각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 간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냉전에서 복합으로
8.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9.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10.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조건 I: 역할·권한·책임
2.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회고와 제언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EAI 여론분석시리즈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국민여론·소수정부·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EAI 영문서적

1.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2.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3. *Party Politics in East Asia: Citizens, Elections, and Democratic Development*
4. *Collective Violence in Indonesia*
5.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6.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EAI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2001-

EAI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는 EAI 홈페이지(www.ea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